

14-17세기 동남아-중국-일본 무역관계*

조 홍 국**

I. 서론

앤서니 리드는 15세기와 17세기 사이 동남아의 해상무역이 그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 더욱 활발했다고 본다. 이 기간 동남아 지역의 무역시장이 번성했던 것은 주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의 토착인, 중국인, 인도인, 일본인 등 아시아인들의 활동 때문이었으며, 16세기에 동남아의 향료무역에 진출하기 시작한 포르투갈인과 스페인인이나 17세기에 동인도회사를 바탕으로 아시아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한 네덜란드인, 영국인, 프랑스인 등 유럽인들의 기여한 바는 오직 부분적이었다(Reid 1993, 1-2).

리드가 택한 15-17세기 기간은 동남아 역사에서 14세기 이전까지 소위 “고전”(classical) 시대와 18세기말 이후 유럽인들에 의한 식민지화와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 진행된 근현대의 중간에 속한다. 즉 위의 기간은 동남아 토착사회가 유럽인들로부터의 기술적,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의해 변화되기 이전이었으며, 사회의 제반 분야에서 동남아 토착인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중국인, 인도인 등 다른 아시아인들과 함께 활발한 대외무역과 외교접촉을 주도 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의 제반 특징들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던 위의 시기는 동남아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리드는 위의 시기를 택한 이유의 하나로 특히 16세기와 17세기에 관해 동남아 토착 언어들로 쓰여진 문헌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의 여행보고서 등 풍부한 일차사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든다(Reid 1988: 15-16).

그러나 근대 이전 동남아와 동북아¹⁾의 무역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14세기를

* 이 글이 완성되는 데 도움을 준 익명의 여러 논평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하나의 분수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14세기가 동남아와 동북아의 여러 나라들의 역사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에서는 1294년경 마자빠히트(Majapahit) 왕국이 말레이반도, 보르네오, 말루쿠(Maluku) 제도 등 도서동남아의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는 해양제국으로 발전하여 활발한 대외무역 활동을 벌였다. 태국에서는 14세기 중엽 해외무역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는 아유타야(Ayutthaya) 왕조(1351-1767)가 흥기하여 활발한 대외무역을 전개했다. 역시 14세기 중엽 중국에서는 명(明) 왕조가 세워져 중국의 대외무역을 조공관계에만 국한하고 중국인들의 모든 해양활동을 통제하는 해금(海禁)정책을 실시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1336년 시작된 아시카가(足利) 막부 시대 초기 큰 경제적 성장이 이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무역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행해졌다.

본 논문은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동남아, 중국, 일본간의 상호 교역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위의 시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선택되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자빠히트와 아유타야 등 동남아의 왕국들과 중국과 일본이 14세기에 해외무역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둘째 17세기는 동남아와 동북아 세계의 무역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예컨대 청(淸) 정부가 1640년대부터 강력한 해금정책을 실시하고, 일본 정부가 1630년대 쇄국(鎖國)정책을 취했다. 또한 태국의 유럽 무역이 1688년 궁정혁명 이후 침체하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의 자바에서는 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무역활동이 팽창함에 따라 토착인들의 해상활동이 크게 줄고 전통적인 향료무역 구조가 파괴되었다.

본고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무역 관계를 동남아-중국 무역, 동남아-일본·류큐(琉球) 무역 등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²⁾ 분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두 무역관계에서 무역의 중개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국상인과 일본상인의 활동을 조사하고 남중국해 무역에 대한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무역정책을 분석한다. 이것은 각각의 분야에서 무역의 일반적인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을 이룬다. 둘째로는 동남아와 중국 및 일본간 무역의 사례로 태국-중국 무역관계와 태국-일본·류큐 무역관계를 분석한다. 당시 자바, 말레이반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있었던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의 중국 및 일본에 대한 무역적 이해관계는 근본적 성격에서 태국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으며, 이들 나라들에 대한 중국 및 일본 정부의 무역적 이해관계도 태국에 대한 중국 및 일본 정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여진다.

1) 본고에서 '동남아'는 오늘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을 포함하는 지역을, 그에 비해 '동북아'는 오늘날 대만,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2) 14-17세기 한국과 동남아간 무역관계에 대해서는 조홍국(1999: 23-46) 참고.

다시 말하면, 태국-중국 무역과 태국-일본·류큐 무역은 동남아와 중국 및 일본·류큐간 무역의 한 표본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연구의 이러한 제한적 성격은 짧은 논문에서 동남아의 다양한 나라들의 중국 및 일본·류큐 무역을 모두 다 논할 수 없다는 기술적 측면과도 관계가 있다.

끝으로 외래어들의 한글 표기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타이어, 크메르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남아 국가들의 고유명사 및 주요 개념들은 현지발음에 가능한 한 가깝게 옮긴다.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중국의 지명, 인명, 서명(書名)과 기타 주요 개념들은 한국의 한자음대로 한다. 그에 비해 중국 사료에 한자로 소개되어 있는 동남아의 지명이나 인명 등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후자의 경우 중국어 표기법을 따르는 것은 한국의 한자음보다 중국어 발음이 그 지명이나 인명에 대한 동남아 해당 국가의 발음에 더욱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문 알파벳으로만 알려져 있는 중국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라 표기한다. 한자로 쓰여진 일본의 인명과 지명과 서명은 일본 발음에 따라 표기한다.

II. 동남아-중국 무역: 태국-중국 무역을 중심으로

1. 화상들의 역할

외국인들이 동남아로 진출한 시기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태국의 경우, 중국 상인 즉 화상(華商)들은 1238년경에 수코타이(Sukhothai) 왕국이 건립되기 이전에 이미 태국만 연안의 여러 항구들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앙코르(Angkor)제국의 자야바르만(Jayavarman) 7세(재위 1178-1220?)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바온(Bayon)의 부조(浮彫)에 보이는 정크가 암시해 준다(Skinner 1957: 1). 이처럼 태국만 우측의 캄보디아 해안에 출몰하여 크메르 조정에까지 그 무역활동이 알려져 있던 중국 상인들은 당시 앙코르제국의 영향 하에 있었던 짜오프라야(Chao Phraya)강의 하구 일대 혹은 태국만 좌측의 말레이반도 동안(東岸) 등 다른 지역도 방문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추측의 구체적인 근거는 19세기초에 청나라의 서송(徐松)이 편찬한 『송회요고』(宋會要稿)로서, 기록에 의하면 12세기말에서 13세기초 사이에 중국상선들이 오늘날 팻부리(Phetburi) 일대에 있었다고 추측되는 전리푸(眞里富)란 성읍국가에 와서 중국산 견사(絹紗)와 도자기를 팔았다. 한편 중국무역의 이익을 인지하고 있었을 전리푸의 국왕은 1200-1205년 사이에는 조공무역 관계를 맺기

위해 중국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사신을 파견했다(Wolters 1960: 1-5; Wyatt 1984: 52). 여기서 우리는 당시에 중국과 태국만 일대 사이에 상당히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225년에 남송(南宋) 사람 조여팔(趙汝适)이 작성한 『제번지』(諸蕃志)에 의하면 말레이반도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단마링(單馬令), 링야시(凌牙斯) 등의 성읍국가들에서는 13세기초에 중국 비단과 도자기가 거래되었다(Chau Ju-kua 1911: 67-68). 이상 살펴 본 여러 전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화상들이 이미 13세기초에는 캄보디아 서안으로부터 말레이반도 동안에 걸쳐 태국만 일대에 진출했음을 알 수 있으며, 혹은 심지어 정착하여 무역기지를 세웠다고 추측할 수 있다(陳荊和 1958: 147).

태국만 일대에서 화상들의 이러한 무역활동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첫째, 남중국해 무역을 위한 태국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들 수 있다. 즉 남중국해 무역을 위한 다양한 상품의 수요지와 공급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 중계무역항들을 제공하는 태국의 남부 해안 일대와 말레이반도 동안이 일찍부터 화상들을 끌어들였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남송(1127-1279) 시대부터 활발히 나타나기 시작한 동남아 무역에 대한 중국 상인들의 관심이었다(Wang 1991: 102-106). 위의 두 요인은 이후 수 세기간 중국-태국 무역의 전개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아유타야 왕국의 중국 무역에 대한 이해관계

태국과 중국간의 교역은 공적인 무역과 사무역(私貿易)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는 소위 조공무역으로서, 태국이 중국으로 조공사절을 파견할 때 행해진 이 무역 형태는 당시 광둥(廣東)에 설치된 시박사(市舶司)라는 중국의 무역관청에 의해 통제되었다(梁嘉彬 1958, 125). 후자는 비공식적인 무역으로서, 여기에는 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화상들뿐만 아니라 태국의 왕, 왕족, 그리고 고위층 관리들도 참가했다(Smith 1980: 11-12). 태국은 중국 정부의 해금(海禁)정책과 조공무역 중심의 대외무역 정책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전자의 무역을 행했으나, 동시에 남중국해의 광범위한 유통망을 이용한 사무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아유타야 정부는 왕조 초기부터 조공무역을 중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것은 조공관계를 통해 후왕박래(厚往薄來) 즉 "(조공사절이) 적게 갖고 왔더라도 (중국 정부는) 후하게 보낸다"는 원칙에 따라(李光濤 1958: 71), 비단과 도자기 등 태국에서 탐내던 중국물품들을 답례품으로 획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공파견시 부차적으로 행해진 무역으로부터의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조공무역에서 중국으로 가는 태국의 조공선들은 배바닥짐(ballast

cargo)으로서 토산물인 후추, 소목(蘇木 sappanwood) 등을 싣고 가서 광둥에서 처분하고, 태국으로 돌아오는 배의 새로운 배바닥짐으로 중국 상품들을 구입하여 태국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팔거나 일본, 인도, 말레이반도의 술탄국들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재수출했다(Viraphol 1977: 145).

아유타야 정부는 특히 관세로부터 면제인 이익 많은 조공무역을 최대한 빈번하게 이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하여 『명사』 및 『명실록』(明實錄)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아유타야 왕국은 1371년부터 1447년까지 중국으로 총 63번 즉 거의 매년 조공사신을 보냈다(許雲樵 1946: 7-15; Wade 1993: A1-A2). 『명사』는 태국이 1371년부터 1374년까지만 10번의 사신을 파견하자 명 정부가 너무 빈번하게 사신을 보내지 말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듣지 않고 계속 보냈다고 말한다(明史: 8396-8397). 또한 청 왕조 시대에 들어서서 1665년 중국 정부가 규정한 3년에 1회의 조공 파견 원칙을 여러 구실로 지키지 않았다(淸史稿: 14690). 예컨대 1665년에 북경으로 조공사절을 보냈던 아유타야 정부는 2년 뒤인 1667년에는 중국 황제에게 만수(萬壽)를 기원한다는 핑계로 또 조공사절을 파견했다(許雲樵 1946: 23-24). 게다가 아유타야 정부는 조공사절 파견시 정공선(正貢船), 부공선(副貢船), 호공선(護貢船) 등 정규적인 선박 이외에 보공선(補貢船), 접공선(接貢船), 탐공선(探貢船) 등 그럴듯한 구실을 단 무역선들을 추가로 보냈다. 그리고 광둥에 도착한 조공선들은 조공사신 일행이 광둥에서 북경까지 가서 중국 황제를 알현하고 다시 광둥으로 돌아올 때까지 소요되었던 6-8개월의 기간 동안 태국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광둥으로 올 수 있었다. 즉 아유타야 조정은 3척으로 이루어진 조공사절을 한 번 파송할 때마다, 12척의 배바닥짐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Viraphol 1977: 32-38). 그리하여 중국측 기록은 태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조공사절을 보내는 것이 “전자미환 이후자계 순환락역 무유휴식”(前者未還 而後者繼 循環絡繹 無有休息) 즉 “앞의 (배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다음 (배가) 계속 들어오고, 순환하여 끊이지 않으며 쉬이 없는” 양상이라고 묘사한다(李光濤 1958: 71).

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얼마나 중시했던가는 또한 16세기 말 일본이 조선을 침범하고 명나라를 위협했을 때 아유타야 정부가 보여준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명사』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이 1592년 조선을 공격하자, 태국 정부는 명나라 조정에 제의하기를 태국이 군사를 출동시켜 일본을 쳐서 그 후방을 견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추(中樞)인 석성(石星)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자는 의견이었으나, 양광(兩廣)의 총독인 소언(蕭彥)은 반대하여, 결국 태국의 제의가 거절되었다(明史: 8401). 당시 아유타야 왕국은 1580년대에 이어 1590년대 초에도 미얀마로부터 계속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1592년 말에는 대규

모 공격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Wood 1933: 139-145).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일본에 대한 해상원정을 기도했던 원인은 중국무역에 대한 태국의 이해관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태국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경우, 전통적으로 태국의 해외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무역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이다(Wolters 1968: 166-171).

아유타야 정부는 중국과의 조공무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왕실무역에 있어서 그 항해와 무역거래를 주로 중국인들에게 맡겼다. 그리하여 대략 100명의 승무원을 태운 태국의 왕실무역선에서 타이인들은 조공사신이나 화물관리인 등 4-5명을 초과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浦廉一 1958: 12-13). 타이인들은 태국의 해외무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적극적인 역할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추측컨대 타이인들이 전통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을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타이 정부가 중국인들을 중국무역에 기용한 것은 그들이 토착인들보다 항해에서 능숙하고 장사수완이 뛰어나다고 간주했기 때문이었다(Cho 1994: 147-148). 아유타야 정부는 중국으로 조공사절을 보낼 때 때로는 심지어 중국인들을 조공사신으로 삼기도 했다. 1381년의 진자인(陳子仁), 1391년의 리나이밍(Li Nai-ming), 1405년과 1410년의 증수현(曾壽賢), 1427년의 황쯔순(Huang Zi-shun), 1438년의 뤼지엔시엔(Luo Jian-xian), 1457년의 마황바오(Ma Huang-bao), 1684년의王大統 등 중국 사료들에 중국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해외무역상의 능력을 기반으로 아유타야의 관료사회에까지 진출한 화상들이었다(許雲樵 1946: 12-13; Wade 1993: A1-A2; 淸史稿: 14691). 그들은 비록 타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타이 사회의 '쿤낭'(khun nang) 즉 귀족관리가 되었으나, 그 본업인 무역을 계속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 신분과 관직을 통해 더욱 많은 무역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남중국해 무역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

아유타야 정부가 왕조의 초기부터 활발하게 중국무역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많은 중국인들이 태국에 정착하여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며, 그것은 한편 명 정부의 해외무역 정책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명은 왕조의 건설 직후 해금정책을 실시하여 중국의 연안에서 모든 사적인 무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와 함께 중국인들의 모든 사적인 해외여행을 엄격히 금했다. 해금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중국의 동남부 연안과 남중국해를 무대로 하여 장사하는 사무역 상인들과 특히 왜구(倭寇)들의 활동이 새로운 왕조의 안전

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왜구들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중에서도 왜구로 가장하고 활동한 자들도 많았다. 해금정책으로 당시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화상들은 중국으로의 귀국과 현지에서의 계속적인 체류중 한가지를 택해야 했다. 그들은 그러나 대부분 동남아에 남아, 한편으로는 사적인 무역과 해적활동 등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적인 무역을 계속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남아 정부에 고용되어 조공무역을 대행했던 것이다(Wang 1992: 14).

아유타야 왕조의 초기부터 태국과 중국간 조공무역이 발전한 것에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놓여져 있었다고 보여진다. 첫째, 중국과의 무역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아유타야 정부의 관심으로, 이것은 당시 태국이 광범위하게 추진하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무역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동남아와의 조공무역 관계를 중시한 명 정부의 대외정책으로,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해금정책과 연결되어 중국 연안지방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무역 활동을 억제하는 대신, 명 조정이 통제할 수 있는 조공무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일컫는다(Wang 1991: 110-112).

명 정부는 지난 수 세기간 발전해 온 중국의 상공업, 특히 명조(明朝)의 초기에 생산력이 크게 증대된 농업과 수공업을 위해 해외시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왕조의 초기에 조법(祖法)으로 확정된 해금정책의 근본적인 방침을 변경할 수 없었으므로 해외무역을 확대시키는 길은 해외 시장을 직접 개척하고 해외의 제국들과 중국간 조공무역 관계를 더욱 다변화하고 확대시키는 길밖에 없었다. 1405년에 시작되어 1433년까지 총 7차에 걸쳐 행해진 정화(鄭和)의 대원정은 그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화의 원정 이후 남중국해 무역에서 중국 상인들의 위치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중국 무역계의 전반적인 관심이 제고되었고, 그에 따라 중국 연안 지방에서 동남아 무역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었다. 그 결과 1430년대부터 근 1세기간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무역이 성행했다(Wang 1992: 14-16; Reid 1996: 31). 16세기 후반이 되면 서양 상인들과 일본 및 중국 사무역 상인들의 활동 증가로 남중국해에서의 사무역에 대한 명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Wang 1991: 113-114). 이러한 배경에서 명 정부는 1567년 해금을 해제했다. 해금의 해제 이후 중국 사무역 상인들의 해외활동이 합법화되었고, 이들의 남양(南洋) 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중국의 해외무역이 크게 팽창하게 되었다. 해금이 철폐된 구체적인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 내에서 소비 및 사치상품의 생산이 증가하여 해외시장을 확대하거나 새로 개척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중국 동남부 연안지방

들의 부유한 상인들과 상공업에 투자한 사대부 가운데 해금의 해제를 위해 영향력 있는 관리들에게 로비 활동을 펼친 자들도 나타났다(Ng Chin-keong 1973: 161-175). 두 번째는 포르투갈 상인들의 중국무역 진출이었다. 이익이 많은 중국의 차와 비단 무역을 개척하기 위해 1514년 중국에 온 포르투갈 상인들은 1557년경에는 마카오(Macao)를 중심으로 중국무역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Yen Ching-hwang 1985: 12-14).

4. 17세기 태국-중국 교역관계

동남아-중국 무역에서 사무역 부문의 확대는 17세기에 들어서서도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동남아-중국 무역은 중국 내의 정치적 변동들에 영향을 받아 17세기 기간 몇 단계의 굴곡을 경험했으며, 태국-중국 무역의 전개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1650년대까지 양국간 조공무역은, 중국사료들의 분석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추세를 보였는데(許雲樵 1946: 21-23). 그것은 무엇보다도 1630년대 이후 중국에서 창궐했던 반란들과 1644년 청 왕조의 건립 후 중국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공무역의 침체는 양국간 사무역의 번성에 기여했으며, 사무역의 활성화는 태국 기반 화상들의 활동이 크게 팽창하는 결과를 낳았다.

1660년대부터 1683년까지의 두 번째 단계에서 태국의 화상들은 태국-중국 무역에서 저조한 활동 양상을 보였다. 결정적인 원인은 청 정부가 정성공(鄭成功) 및 그의 아들 정경(鄭經)을 중심으로 명 충성파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1661년부터 1684년까지 중국 동남 해안지방의 해외여행과 해외무역을 금지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해금”(海禁)이라고 알려진 이 조치로 중국과 동남아간 사무역이 침체되었다(浦廉一 1958: 5-7). 그에 비해 해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조공무역은 활발히 진행되어 사무역의 침체를 통한 태국-중국 무역량의 부족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었다(許雲樵 1946: 23-26).

그러나 해금에도 불구하고 아유타야 정부뿐만 아니라 화상들에게도 중요한 중국과 태국간 사무역은 비록 감소되었고 또한 청 정부측에서 볼 때 불법적이었지만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660년대와 1670년대 태국과 아모이(Amoy, 즉 廈門) 및 광둥 사이의 상선 왕래에 관한 여러 당대 보고들로부터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인들의 보고에 의하면, 1678년 10월초부터 1679년 9월말까지 아유타야에서 중국으로 간 배들은 광둥으로 5척, 아모이로 3척, 마카오로 4척이었다. 같은 기간 중국을 출발하여 아유타야에 입항한 상선들

은 광동으로부터 4척, 아모이로부터 4척, 마카오로부터 3척 등 모두 11척이었다(岩生成一 1941, 111). 1670년대 태국에서 활동했던 영국 상인 조지 화이트(George White)의 기록에 따르면, 1670년대 말 광동과 아모이의 상선들은 아유타야를 자주 들르는 외국 선박들에 속했고, 특히 아모이로부터 매년 2-3척의 정크가 와서 태국 정부로부터 초석(硝石)을 구입했다(Records II 1915-21: 204-207). 당시 아모이에서 태국산 초석을 구한 것은 대만과 그 맞은 편 해안지방, 특히 아모이 일대의 남부 복건(福建)을 장악하고 있던 정씨 일당이 만주족의 청 정부에 대항하는 전쟁을 위해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아유타야 정부가 청조와 적대관계에 있던 집단과 무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 사료에 의하면, 나라이왕은 심지어 1661년 정성공이 파견한 사신을 접견했고, 이 사신은 "태국 왕의 회신과 선물을 갖고 대만으로 돌아갔다"(Records II 1915-21: 39). 아유타야 조정이 청과의 조공관계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하게도 정씨 일당과 무역을 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된다. 첫째는 당시 태국의 중국인 사회와 태국-중국 사무역에서 남부 복건 출신 화상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Skinner 1957: 8-15; Viraphol 1977: 42-43). 둘째는 당시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사무역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태국-중국 사무역은 이미 16세기초 이후 공식적인 조공무역을 무역량과 실질적 가치에서 능가했다고 본다(Viraphol 1977: 3).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1684년 이후로, 정씨 반란집단을 굴복시킨 청 정부가 이 해에 해금을 해제함으로써 중국과 동남아간 사무역이 다시 활발해졌다(梁嘉彬 1958: 128). 1684년 해금의 철폐 이후, 청 정부는 해외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상인들의 무역활동을 장려했으며, 그 결과 광동과 아모이가 해외무역 중심지로 발전했다. 태국-중국 무역에서는 특히 아모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남부 복건 상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 이 지역 출신 화상들의 당시 태국에서의 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Viraphol 1977: 48-60). 해금 해제 이후 양국간 사무역의 부흥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파리 외국선교회(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의 선교사로서 1686년까지 4년간 태국에서 체류하면서 이 나라의 언어, 종교, 풍속, 역사 등을 공부한 제르베즈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의하면, 1680년대 후반기에 중국 및 일본의 물품들을 아유타야로 실어오는 중국 상인들의 상선이 매년 15내지 20척이나 되었다(Gervaise 1688: 76).

끝으로 1688년 태국에서 일어난 한 정치적 변동도 위의 세 번째 단계에서 태국-중국 무역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었던 것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궁정혁명(Palace Revolution)이라고 불리는 왕실 내 쿠데타를 통해

그동안 친유럽적이었던 나라이왕의 정부가 무너지고, 보수적인 펫타라차(Phetracha: 재위 1688-1703)왕이 등위했으며, 네덜란드인들을 제외한 유럽의 무역상인들은 모두 태국으로부터 철수했다(Cho 1994: 314-332). 이로써 태국에서의 유럽인 무역활동은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게다가 펫타라차 정부와 그 이후의 아유타야 정부들은 중국무역을 대외무역 정책의 중심에 두었고, 그 과정에서 아유타야 정부의 후원을 받은 중국 상인들은 태국-중국 무역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는 단적인 예로 1703년 펫타라차의 아들인 스어(Suea: 재위 1703-1709)가 등위하자, 새로운 정부의 프라클랑(Phra Khlang), 즉 해외무역을 포함한 왕국의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크롬 프라클랑(Krom Phra Khlang)의 장관직에 중국인이 임명되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자는 1733년까지 이 직위에 있으면서 크롬 프라클랑에 중국인들을 대거 기용하여, 이 행정부처가 당시 중국인들에 의해 거의 지배되다시피 하는 등 태국 정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Lailert 1972: 61-62).

III. 동남아-일본·류큐 무역

1. 동남아의 일본인들

일본인들의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은, 현재 사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16세기 이후부터라고 간주된다. 일본 정부는 1534년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표류해온 이후 남중국해의 포르투갈인 및 스페인인들과의 무역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상인들은 포르투갈의 무역기지인 말라카(Malacca)와 마카오 등을 방문했으며, 일본의 상선들은 점차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도 진출했다(上智大學アジア文化研究所 1992: 237). 그러나 일본인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 1592년 주인선(朱印船) 제도를 실시한 이후부터라고 보여진다.³⁾ 16세기 말-17세기초 동남아로 간 일본인들은 대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에 속했다.

- 1) 무역을 위해 동남아로 간 나가사키(長崎)나 교토(京都)의 상인들이나 사카이(堺) 상인들
- 2) 17세기 초 에도(江戸) 막부의 탄압을 피해 동남아로 간 기독교 신자들

3)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왜구들의 불법적인 무역행위를 금하고 정부가 통제하는 해외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주인선 제도에 대해서 三木榮(1934: 146-147) 참고.

- 3)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과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시 조선으로 출병했다가 돌아온 큐슈(九州) 지방의 낭인(浪人)들(金永鍵 1943: 1-2).

일본과 동남아간의 무역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동남아의 주요 항구들에 정착하여 사는 일본인들의 숫자가 증대되었다. 그리하여 17세기초가 되면 당시 캄보디아의 수도인 우동(Oudong)의 외항(外港)이었던 폰허어루(Ponhea-lu)뿐만 아니라 프놈펜에는 소위 일본정(日本町)이 형성되어 있었고(金永鍵 1943: 8-10; 金永鍵·杉本直治郎 1942: 第17圖), 태국의 आयु타야에는 1,000-1,500명의 일본인 마을이 있는 등, 당시 동남아에서 사는 일본인들이 모두 10,000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上智大學 아시아文化研究所 1992: 237). 동남아-일본 무역에서 일본인들은 동남아-중국 무역에서의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개자의 역할을 행했다. 비록 화상들이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무역에서 수세기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무역활동을 행한 정도로는 아니지만, 베트남과 태국 등 몇몇 개별 동남아 국가들과 일본간의 무역관계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인들은 종종 핵심적인 역할을 행했다.

베트남에서 일본인들의 활동은 17세기 베트남이 북부의 쩐(Trinh) 가문과 중부 및 남부의 응우엔(Nguyen) 가문의 통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었음에 따라 양 지역에 걸쳐서 행해졌다. 북부 톱킹(Tongking) 지역에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유럽인 가톨릭 신부들의 당대 보고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당시 해외무역에 있어서 더욱 활발했던 응우엔 지역에 더욱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가 활동했다. 그것은 1604-1635년간 동남아 지역으로의 항해를 위해 주인장(朱印狀) 즉 무역허가증을 받은 일본 주인선들의 숫자가 톱킹은 36척이었던 것에 비해 응우엔 지역의 안남(Annam)과 코친차이나(Cochinchina)는 모두 합하여 84척이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Li Tana 1998: 62). 후에(Hue)를 수도로 한 응우엔 정부는 주인선을 타고 갈수록 많이 들어오는 일본인들을 위해 17세기초에는 다낭(Da-nang) 지역에 일본인 조계(租界)를 설치했다. 17세기 베트남에서 가장 큰 일본인 사회가 있었던 곳은 응우엔 톱킹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인 호이안(Hoi-an)이었다(金永鍵 1943: 3-5).

베트남의 일본인들은 위의 세 가지 유형 중 대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응우엔 지역으로 간 일본 무역상인들이 많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17세기초 응우엔 정부의 일본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었다(Li Tana 1998: 64). 기독교인들의 도래는 당시 베트남에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온 많은 가톨릭 신부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의 다른 곳보다 기독교가 더욱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점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태국에 온 일본인들은 위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들의 경우, 16세기말부터 태국에서 활발한 선교를 해오던 포르투갈 신부들이 있던 아유타야는 그들에게 유리한 곳이었다(Bowring 1856: 347-348). 일본인 기독교인들은 베트남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개는 현지에서 무역에 종사했을 것이다. 태국의 일본인 사회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일본인들이 1630년대까지 태국-일본 무역에서뿐만 아니라 태국의 국내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아유타야 왕실연대기에 의하면, 에카투스랏(Ekathotsarot: 재위 1605-1610/11) 왕의 사후 왕위계승 분규를 통해 송탐(Song Tham: 재위 1610/11-1628)왕이 즉위하자 280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왕궁을 습격한 사건이 일어났는데(Phonnarat 1971: 332; Records I 1915-21: 6-8; Satow 1885: 182), 이들은 위의 세 번째 유형에 속한 자들로 보인다. 1620년대와 1630년대 초 태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야마다 나가마사(山田長政)가 거느리고 있었던 일본인 무사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Van Vliet 1647: 129-133). 일본인들은 아유타야 성밖에 별도의 구역에 살았으며, 그들의 대표는 태국-일본간 무역뿐만 아니라 양국간 외교관계에서도 종종 중개자 역할을 행했다(郡司喜一 1938: 92; Records I 1915-21: 48, 55, 77).

베트남과 태국에서의 일본인 사회들은 1630년대 일본 정부의 쇄국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해외에 나간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본으로 돌아감으로써 점차 축소되었다. 게다가 동남아에 남아 있던 일본인들은 쇄국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로 동남아-일본 무역이 쇠퇴함으로써 무역상인으로서의 역할 또한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金永鍵 1943: 7).

2. 동남아-류큐 무역

동남아-일본 무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선 현 오키나와(沖繩)섬에 있었던 류큐 왕국과 동남아간의 교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동남아-류큐 무역은 14세기에 시작된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주인선 무역보다 앞서며, 특히 일본이 동남아와 본격적으로 무역하기 전 류큐를 통해 동남아 산물들을 획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류큐 무역은 16세기말에 시작되는 동남아와 일본간 교역의 중요한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舟越康壽 1943: 121).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류큐의 무역은 근본적으로 중계무역이었다. 동남아 지역과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이미 중계무역을 위한 천혜의 조건이 주어져 있었고, 또한 유향과 말 이외에는 해외시장에

내놓을 만한 상품이 없었던 류큐로서는 중계무역이 유일한 선택이었다(Ishii 1990: 354-355). 그밖에도 명의 해금정책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국제무역이 전반적으로 침체해졌다는 측면 또한 류큐 왕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간의 무역에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Sakamaki 1964: 384-385; Yamamura 1990: 398).

류큐의 중계무역 형태는 동남아의 특산물 특히 소목과 후추를 구입하여 이에 대한 수요가 큰 중국, 일본, 한국 등에 팔고 동북아 시장에서는 비단, 도자기 등을 가져다가 동남아의 여러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었다(舟越康壽 1943: 122). 류큐 정부가 통제한 류큐의 해외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남아 특산물로써 중국과 무역하는 것이었는데, 중국과의 무역은 조공무역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무역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72-1571년 간 총 317척 즉 년 평균 1.5척 이상의 류큐 상선들이 중국의 항구들을 방문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Ishii 1990: 359-360).

류큐 왕국이 동남아 지역과 처음으로 무역 접촉을 한 곳은 태국으로 1380년대에 그 첫 교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Ishii 1990: 356). 거의 대부분 류큐의 상선이 아유타야를 일방적으로 방문하는 형태를 띠었던 양국간 무역이 본격적으로 행해진 것은 일본 사료 『레키다이호안』(歷代寶案)에 따르면 1419년경부터였다. 이 해에 세 척의 배가 아유타야를 방문했으며 1427년까지 류큐의 동남아 무역은 아유타야에만 국한되었던 것 같다(Kobata and Matsuda 1969: 55ff.). 그러나 류큐 왕국은 동남아 무역을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 1428년부터는 자바섬과 수마트라의 팔렘방(Palembang)으로, 1463년부터는 말라카 왕국과 수마트라 서북단의 아체(Aceh)로, 1490년부터는 빠따니(Pattani)로, 1509년에는 베트남으로, 1513년에는 순다해협역의 현 자카르타 지역인 순다-갈라빠(Sunda-Kalapa)로 상선을 파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들과의 무역은 불과 수년 혹은 수십년 뒤에는 모두 중단되었다. 그 중 특히 말라카와의 무역접촉이 1511년 이후 끝난 것은 그 해에 동서 향료무역의 중요한 중계무역항이었던 이 왕국이 포르투갈인들에게 정복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에 비해 태국과의 무역은 1419-1564년간 총 61척의 류큐 상선이 아유타야를 방문하여, 류큐-태국 무역은 류큐의 동남아 무역 가운데 빈도와 기간에 있어서 다른 동남아 지역과의 무역을 크게 능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유타야 시장이 비교적 풍부한 양의 소목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Ishii 1990: 357). 태국과의 무역관계가 1560년대 중엽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아유타야 시장이 말라카 등이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대외적 위협이 없이 비교적 평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류큐의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무역은 1564년을 끝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짐작된다. 첫 번째, 류큐-태국 무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으로 1560년대 중엽 이후 아유타야의 정치적 및 사회적 혼란을 들 수 있다. 1563년 말부터 미얀마의 공격을 받은 아유타야 왕국은 그 이듬해 초 미얀마에게 굴복하고 말았다(Phonnarat 1971: 73-79). 게다가 당시 태국의 속국이었던 빠따니의 술탄은 아유타야를 도우러 군대를 이끌고 왔다가 이 나라의 혼란된 상황을 보고는 수도의 왕궁을 습격하고 약탈했다(Cho Hung-Guk 1999: 52-54). 1569년 아유타야는 미얀마 군대의 재침으로 완전히 점령되어 그 후 20여 년간 미얀마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두 번째, 위에서 이미 서술한 바처럼, 16세기초 동남아에 진출하기 시작한 포르투갈인들이 16세기 중엽이 되면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여 동남아와 중국간 중계무역에서 류큐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로는, 역시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1567년 중국 정부가 해금을 해제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로써 해외무역 활동이 합법화된 중국 사무역 상인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다. 네 번째 이유는 16세기말 주인선 제도의 도입 이후, 특히 일본인들의 해외무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토쿠가와(德川) 정부가 1603년 수립된 이후, 많은 일본 상인들이 동남아 무역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 원인들은 모두 동남아 무역에서 류큐의 위치를 크게 약화시켰다(Ishii 1999: 360-361). 동남아-류큐 무역이 쇠퇴하자 그동안 동남아 특산물들을 매개체로 하여 행했던 류큐의 중국 및 한국과의 무역도 침체하게 되었다.

류큐의 동남아 무역이 종식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류큐 왕국이 1609년 류슈의 사츠마(薩摩)에 의해 정복되었고 1611년에는 사츠마와 맺은 일련의 조약으로 사츠마의 속국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류큐는 이후 사츠마 정부의 허락 없이는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도 수입하거나 무역거래를 할 수 없는 등, 모든 해외무역 활동에 있어서 사츠마의 통제를 받았다. 이로써 해외무역 활동의 폭이 크게 위축된 류큐는 동남아에 대한 무역적 관심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Sakai 1964: 391-392).

3. 남중국해 무역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

일본과 동남아 사이의 교역은 16세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비록 우연적이고 산발적이지만 일본과 동남아간의 접촉은 10세기 이전부터 있었다. 일본은 헤이안(平安) 시대(794-12세기초) 중국을 통해 동남아산 향신료나 약재 등을 수입했다. 카마쿠

라(鎌倉) 시대(12세기말-1333)까지도 동남아 물품들에 대한 일본의 수요는 중국-일본 무역을 통해 충족되고 있었다. 동남아 특산물들에 대한 수요는 위에서 본 것처럼 15세기-16세기 전반 시기에는 류큐를 통해 충족되었다. 류큐 상선들이 제공한 동남아 특산물들은 일본에서 소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이 중시하고 있었던 중국무역에 있어서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했던 품목들에 포함되기도 했다(舟越康壽 1943: 119, 127).

일본은 13세기말에 원의 군사적 공격을 경험한 후 선박 건조와 항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해외 항해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일본인들의 해외 진출이 점차 늘어났다. 그러한 현상의 하나로 14세기 초가 되면 왜구들의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森克己 1975: 525). 14세기 이후 일본의 해외무역 발전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바탕은 아시카가 막부 시대(1336-1573)의 초기에 이룩된 경제적 성장이었다. 농업 생산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수공업 분야에서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산 증가가 나타났다. 농업 및 수공업은 이제 자체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무역을 위해 생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써 장인들과 상인들의 활동이 중시되었고,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팽배해졌다. 특히 해외무역의 고수익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일본의 여러 정치세력들은 14세기 중엽 이후 중국과 활발한 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Hall 1983: 123-128). 중국무역에 대한 일본의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서 요시미츠(義滿) 쇼군(1358-1408)은 1403년 명 조정에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이 중국의 신하국임을 인정했다. 이것은 일본을 중국과 대등하게 여기던 전통적인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서, 일본이 중국 황제가 중심이 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의 국제질서에 편입하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수립된 조공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일본간에 소위 감합(勘合)무역(tally trade)이 1404년부터 시작되어, 15세기 초부터 1547년까지 총 19회의 조공사절이 중국으로 파견되었다(Yamamura 1990: 424-439).

그동안 중국 및 류큐를 통해 이루어졌던 동남아와 일본간의 간접적인 접촉은 16세기 후반이 되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무역적 관심으로 발전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해외무역에 대해 갈수록 팽배해진 관심의 결과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1580년대 말 일본을 평정한 히데요시가 일본의 영향력을 해외로 팽창하고 이와 함께 일본인들의 해외무역 활동을 남양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郡司喜一 1938: 15-16). 1589년 류큐 정부는 1587년 류슈 지방을 평정한 히데요시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조공을 바치려 하고 있었고, 1590년에는 히데요시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자 오래 전부터 꿈꾸어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실제로 1591년 7월 히데요시는 고아(Goa)의 포르투갈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 일본이 중국을 정복한 다음에는 인

도도 정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같은 해 필리핀의 스페인 총독에게도 사신을 보내 일본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촉구했다(舟越康壽 1943: 147-149; Wolters 1968: 167).

남양으로의 무력적 팽창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위의 사실은 당시 일본 정부가 해외무역 시장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히데요시는 그러나 일본인들의 해외무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되 그것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다. 1592년부터 시작된 주인선 제도는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히데요시의 해외무역 정책은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 의해 계승되어, 동남아에 진출한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과도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郡司喜一 1938: 17-18).

4. 태국-일본 교역관계

일본과 태국간의 교역에 대한 첫 보고는 일본의 사료나 태국의 사료가 아니라 고려왕조의 연대기인 『고려사』(高麗史)에 나타난다. 기록에 따르면, 1388년 아유타야를 출항한 태국의 한 상선이 1390년 중엽에 일본에 도착했으며 그곳에서 1년간 있다가 이듬해 중엽에 고려에 왔다(高麗史, 3: 897). 이 상선이 일본에 온 것은 처음부터 일본을 목표로 항해한 결과라기보다는 당시 태국의 왕실무역상인들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무대로 전개한 무역활동의 우연적인 부산물이었다고 보여진다. 이 같은 해석의 근거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그 상선이 태국을 출발한 지 2년만에야 일본에 도착했다는 사실이다. 추측컨대 주로 중국과 무역을 했던 이 상선은 태국을 출발한 후, 당시 중국무역을 하던 동남아 무역선들이 대개 행했던 것처럼, 도중에 남중국해의 다른 항구들을 들렀고 그 후 중국 동남부 연안의 어떤 항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무역을 하다가 일본에 관하여 듣고 1390년 중엽에 일본에 도착했다. 태국 상선의 1390년 일본 방문이 우연적이었다는 것의 두 번째 이유는 그 후 양국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태국-일본 교역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무역적 관심이 직접적인 양상으로 발전된 16세기말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주인선 제도가 시작된 1592년경 일본 상선들은 말레이반도 동안의 주요 항구들인 나콘시탐마랏과 빠따니를 찾아왔다. 1604년경이 되면 일본 정부로부터 주인장을 받아 일본과 태국간의 무역을 하는 일본 상인들 중에 아유타야에 정착한 자들도 나타났다(Satow 1885: 140). 태국-일본 공식적 무역관계는 17세기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해외무역을 확대하려던 토쿠가와 정부의 노력과 해외무

역에 대한 아유타야 조정의 적극적인 관심에 기인한다.

양국간 무역은 17세기초 아유타야 왕국의 에까똌사룻왕과 송탐왕 시대에 가장 활발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1606년과 1608년에 에까똌사룻에게 서신을 보내 양국간 우호적인 무역관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침향(沈香 aloeswood)과 소총(鐵砲) 그리고 화약의 재료인 초석을 수출해 주기를 요청했다(郡司喜一 1938: 78-88). 1610년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태국 왕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위의 두 편지를 받은 아유타야 정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소총과 초석을 보내주었다(Satow 1885: 145-146). 일본과의 교역에 대해 이처럼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준 에까똌사룻은 반 블릿에 의하면 “그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 탐욕스러운” 자였다(Van Vliet 1640: 88). 추측컨대 그는 왕실의 재정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해외무역의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에까똌사룻왕 때 시작된 태국-일본 공식적 무역관계는 송탐왕 시대에 크게 활성화되었다. 당시 양국간 무역의 활발함은 토쿠가와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아유타야로 향해하는 상선들에게 내어준 주인장의 숫자에서 알 수 있다. 1604년부터 1616년까지 총 36장이 발행되었는데, 그 숫자는 같은 기간 한 국가로 가는 일본 상선들에게 발행된 주인장으로서 가장 많은 것이었다(Ishii 1971: 162). 1610년대 초부터 아유타야 정부의 무역선들은 일본을 지속적으로 방문했으며, 1616년 일본에 보내진 배는 일본측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는 최초로 태국의 사절을 태우고 갔다. 1626년까지 이어진 양국간 사절 파견을 통해 서신들과 선물들이 교환되었다(郡司喜一 1938: 92ff.; 三木榮 1934: 54-58; Satow 1885: 147-167). 양국간 무역은 일본인들에 의해 지배되었는데, 그들은 특히 1620년대 태국의 가장 중요한 대 일본 수출품인 노루가죽의 유통을 장악했던 것처럼 보인다(Röhl 1955: 12-16; Smith 1977: 21, 53-56). 17세기말까지 태국-일본 수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던 동물가죽은 일본에서 주로 갑옷과 버선(“타비”)의 재료로 혹은 상자와 가방 등의 외피로 사용되었다(Smith 1977: 148-149).

태국과 일본간의 공식적 무역은 뿌라삿통왕의 통치 기간 정체되었다. 예컨대 1634년과 1635년 뿌라삿통 정부는 송탐왕 시대에 활발했던 태국-일본 무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나가사키로 사신들을 파송했지만, 이들은 일본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55년까지 같은 목적을 위해 수 차례 행해진 노력들도 모두 실패했다(岩生成一 1941: 89-102). 여기에는 다음의 원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1630년대 중엽부터 점차 강화되었던 일본 정부의 쇄국(鎖國) 정책으로, 반(反)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이 정책은 일본인들의 해외로의 입출국을 금했으며 오직 중국인들의 상선과 네덜란드 무역선에게만 나가사키에서

의 무역을 허락했다(郡司喜一 1938: 22-25). 이로써 그때까지 일본과 공식적인 무역을 해 왔던 아유타야 왕실무역선들은 결정적인 피해를 입었다. 둘째 일본 정부는 왕위를 찬탈했을 뿐만 아니라 태국에 사는 일본인들을 학살하고 추방한 빠라삿통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Van Vliet 1637/8: 48-49). 셋째 수익성 많은 태국-일본 무역을 독점하려던 네덜란드인들이 양국간의 모든 직접적인 교역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했다(岩生成一 1941: 86-91).

양국간 공식적 무역은 나라이왕 시대에 들어서서 다시 활발해졌다. 이와오 세이이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유타야를 출항하여 나가사키에 입항한 상선들이 1647-49년간 0척, 1651-52년 매년 1척, 1653-54년 매년 2척, 1655년 0척이었던 것이 나라이왕이 등위한 1656년과 그 이듬해 각각 3척으로, 그리고 1658년에는 5척, 1659년에는 6척으로 증가했다. 1660년대에도 매년 평균 3척의 시암(Siam) 상선이 나가사키에 갔다(岩生成一 1953: 992-993). 그러나 당시 태국-일본 무역은 일본의 쇄국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한 합법적인 정식의 무역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상선들이 일본의 항구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岩生成一 1941: 116). 특히 태국의 상선들이 일본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당시 나가사키에 입항한 동남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상선들과 마찬가지로 그 승무원들이 거의 모두 중국인들로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당선"(唐船) 즉 중국인 상선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었다(Ishii 1988, 12-13). 그러나 나라이왕 등위 이후 태국-일본 무역이 다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의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군지 키이츠에 의하면 토쿠가와 정부의 쇄국 정책이 1650년대 중엽 이후 점차 완화되었기 때문이었다(郡司喜一 1938: 197). 또 다른 이유로는 비록 입증할 사료가 없지만 나라이왕 정부가 빠라삿통왕의 정부에 비해 일본 당국의 눈에 긍정적으로 비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630년대 쇄국 정책 이후 태국-일본 무역에는 대체로 중국 상인, 네덜란드동인도회사, 태국 조정 등 세 그룹이 가담하고 있었다. 중국 상인들은 태국-중국 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태국-일본간 공식적 무역을 맡아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무역도 행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상들은 1630년대 일본 정부의 쇄국 정책으로 그때까지 일본인들이 장악했던 태국-일본 무역에 네덜란드인들과 더불어 참가하게 되어, 그들의 무역활동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당시 일본무역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아유타야 정부가 일본과의 비공식적인 무역에서 중국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됨에 따라, 그들은 아유타야 정부의 특별한 후원을 등에 업고 활동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1640년대 중엽에는 태국과 일본간 사무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그 후 1660년대 중엽까지 일본

무역에 참가하는 화상의 숫자가 계속 증가했다(Smith 1977: 61). 그들은 그러나 종래 차지해 왔던 지배적인 위치를 1660년대 후반부터 상실했다. 그 이유는 첫째 1664년 태국과 네덜란드동인도회사 사이에 체결된 무역협정에 따라 네덜란드동인도회사가 수익성 높은 노루가죽 및 소가죽의 수출을 독점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목, 상아, 여러 종류의 수지(樹脂) 등 태국-일본 무역에서 역시 중요한 물품들이 태국의 국왕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이었다(Smith 1977: 78).

태국-일본 무역에 가담한 위의 세 그룹 가운데 가장 큰 그룹은 아유타야 정부 특히 태국 국왕이었다. 예컨대 1664년부터 1694년까지 아유타야에서 나가사키로 항해한 상선은 모두 77척이었는데, 그 중 54척이 태국 국왕의 왕실무역선들이었다. 이에 비해 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선박은 31척이었다. 태국-일본 무역에는 그러나 왕비, 왕자, 공주 등 다른 왕족들과 고위 관리들도 종종 참가했는데, 이 사실은 일본무역이 그만큼 수익성이 높았다는 것을 시사한다(岩生成一 1941: 110-119; Records II 1915-21: 240; Smith 1977: 78). 왕실무역선뿐만 아니라 이러한 왕족들과 고위 관리들의 상선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 중국인들을 승무원으로 두었다. 오직 소수의 타이인들만이 무역의 감독과 회계를 위해 탑승했다(浦廉一 1958: 13-15).

태국-일본 무역은 1680년대 후반에 다시 정체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일본에서 태국으로 수출된 품목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구리의 수출량이 1674년 약 447,920kg, 1679년 126,892kg, 1684년 525,484kg에서 1687년에 불과 35,437kg으로 크게 줄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岩生成一 1953: 1017-1018).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추측할 수 있다. 첫째 1684년 청 정부의 해금 해제를 들 수 있다. 해금 해제 이전까지 일본 구리의 약 70%는 대만과 동남아 국가들에서 온 상선들이 구입했다. 예컨대 1684년 태국이 수입한 525,484kg은 그 해 일본의 모든 구리 수출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해금의 철폐 이후 일본무역에 참가하는 중국 사무역 상인들의 활동이 크게 늘어 1687년에는 구리의 약 90%가 중국의 여러 항구들에서 온 상선들에 의해 수출되었다(岩生成一 1953: 1014-1018). 둘째는 뿌라삿통왕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태국과 일본간 무역의 발전을 시기한 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방해 공작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네덜란드동인도회사가 1686년과 1687년에 나가사키의 일본 당국에게 보낸 서신들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동인도회사는 프랑스 사절단이 아유타야에 왔으며, 함께 온 5-6명의 프랑스 가톨릭 신부들이 기독교 전파를 위해 태국에 남았다는 것, 그리고 태국 정부가 프랑스, 포르투갈 등으로 사신을 파견했다고 보고한다(華夷變態, 603-604, 781).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과 태국간의 이러한 접촉들

에 관한 보고는 당시 엄격한 반가톨릭적인 쇄국 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일본 정부에게 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을 것이다.

IV. 결론

14세기-17세기 동남아-동북아 무역이 부분적인 굴곡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비교적 활발한 양상을 띠었던 것은, 본고에서 분석한 것처럼, 첫째는 해외무역에 대한 중국 정부와 일본·류큐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중국 및 일본 무역에 대한 동남아 정부들의 능동적인 관심이 작용했기 때문이었고, 셋째로는 동북아·동남아 왕국들에서 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그러한 무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중개자로서의 중국상인들과 일본상인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와 상인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 무역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무역시장에서 공식적 무역과 사무역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무역 구조를 낳았다. 이 두 무역 구조는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동남아 정부들의 중국 및 일본 무역에 대한 자세에 따라 상호의 비중이 달랐다. 그 비중의 차이는 대개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보다 공식적인 무역 채널을 중시한 반면, 동남아 정부들은 조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진 공식적 무역과 더불어 사무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동남아 정부들의 무역을 담당하는 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동남아 무역시장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화상들이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역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그들의 활동에 의해 공식적 무역과 사무역은 종종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태국과의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한 동남아-중국 무역과 동남아-일본·류큐 무역은 본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14세기-17세기 기간 같은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에서도 중개자인 화상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스위스의 문화사가인 비테를리의 문화 이론은 한 가지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대개 우연적이며 기간에 있어서 일회적이거나 혹은 오랜 단절 후에 다시 맺어지는 등 불규칙한 문화접촉(Kulturberührung)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룬 양자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특히 교역을 통한 상호 교환적인 접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문화관계(Kulturbeziehung)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자(Mittelsleute)가 있어야 한다(Bitterli 1992: 17-54).

본고에서 고찰한 14-17세기 동남아-중국 무역과 동남아-일본·류큐 무역은 비테를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다. 우선 동남아-중국 무역 관계는 지속적이었고 그 무역량에 있어서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서 문화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문화관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었고 중국도 동남아 지역과의 무역을 항상 중시했기 때문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양방향의 관심을 이어주는 중개자로서 화상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4-16세기말 동남아-일본 교역은 1390년 태국 상선의 일본 방문이 우연적이었고 양국간 무역이 그 후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화접촉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류큐를 일본의 역사적 전통에 포함시킬 때, 14-17세기 동남아 무역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띠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4세기말부터 1564년경까지의 동남아-류큐 무역과 1592년 이후 동남아-일본 무역은 실질적인 교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문화관계였다. 그 과정에서 각각 류큐 상인들과 일본 상인들이 중개자로서 역할을 했지만, 두 경우 모두 중국 상인들의 활동에 의지한 바가 적지 않았다(Ishii 1990, 353-354).

사라신 위라폰은 중국-태국-일본간 무역을 삼각무역(triangular trade)이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아유타야를 출항한 상선이 중국의 항구들에 들렀다가 일본의 나가사키로 갔으며, 혹은 일본을 먼저 방문했다가 중국으로 가기도 했다(Viraphol 1977: 60; Ishii 1998: 21ff.).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가 동일한 몬순과 해류의 영향하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무역관계는 상호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즉 동중국해의 무역권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왔으며, 남중국해 무역의 역동성은 항상 동중국해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두 지역내 주요 국가들간의 무역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무역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인식과 정책을 이해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중국해에서의 상호 무역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오늘날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상호 무역적 이해관계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용어 : 사무역, 조공무역, 삼각무역, 감합무역, 화상, 일본상인, 아유타야, 주인선

참고문헌

- 『高麗史』. 1981. 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朝鮮王朝實錄』. 1986.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조흥국. 1994. "17세기 타이 역사사료 일본·류큐연구." 『동방학지』, 제84집, 267-301.
- _____. 1999. "근대 이전 한국과 동남아시아간 접촉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1호, 23-46.
- Bitterli, Urs. 1992. *Alte Welt - neue Welt: Formen des europäisch-überseeischen Kulturkontaktes vom 15. bis zum 18. Jahrhundert.* München: DTV.
- Bowring, Sir John. 1856(1969). *The Kingdom and People of Siam. Volume On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Lailert, Busakorn. 1972. "The Ban Phlu Luang Dynasty 1688-1767: A Study of the Thai Monarchy During the Closing Years of the Ayuthya Period." Ph.D. diss., London: University of London.
- Chau Ju-kua. 1911. *His Work on the Chinese and Arab Trade in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entitled Chu-fan-chi.* Trans. Friedrich Hirth and W. W. Rockhill. St. Petersburg: Printing Office of the Imperial Academy of Sciences.
- Cho, Hung-Guk. 1994. *Die politische Geschichte Thailands unter der Herrschaft König Narais(r.1656-1688).* Seoul: Munduksa.
- _____. 1999. "Thai-Malay Conflicts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2, No. 2, 47-68.
- Coedès, Georges. 1968. *The Indianized States of Southeast Asia.* Walter F. Vella(e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Gervaise, Nicolas. 1688. *Histoire naturelle et politique du royaume de Siam.* Paris: Claude Barbin.
- Giles, Francis, H. 1938. "A Critical Analysis of van Vliet's Historical Account of Siam in the 17th Century."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 30, No. 2, 155-240; Vol. 30, No. 3, 271-380.
- Hall, John Whitney. 1983. *Das japanische Kaiserreich.* Trans. Ingrid Schuster.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 Ishii, Yoneo. 1971. "Seventeenth Century Japanese Documents about Siam."

-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 59, No. 2, 161-174.
- _____. 1988. "Thai-Japanese Relations in the Pre-Modern Period: A Bibliographic Essay with Special Reference to Japanese Sources." Chaiwat Khamchoo and E. Bruce Reynolds, eds. *Thai-Japanese Relations in Historical Perspective*, 1-16. Bangkok: Innomedia.
- _____. 1990. "The Ryukyu in Southeast Asian Trade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K. M. de Silva, Sirima Kiribamune and C. R. de Silva(eds.). *Asian Panorama: Essays in Asian History, Past and Present*, 353-365. New Delhi: The Executive Committee, 11th Conference of IAHA.
- _____. 1992. "The Rekidai Hôan and Some Aspects of the Ayutthayan Port Polity in the Fifteenth Century." *The Memoirs of the Toyo Bunko*, Vol. 50, 81-92.
- Ishii, Yoneo.(ed.). 1998. *The Junk Trade from Southeast Asia*. Translated from the *Tôsen Fusetsu-gaki, 1674-1723*. Singapore: ISEAS.
- Khien Theeravit. 1988. "Japanese-Siamese Relations, 1606-1629." In *Thai-Japanese Relations in Historical Perspective*. Chaiwat Khamchoo and E. Bruce Reynolds. (eds.). *Thai-Japanese Relations in Historical Perspective*, 17-44. Bangkok: Innomedia.
- Kobata, A. and Matsuda, M. 1969. *Ryukyuan Relations with Korea and South Sea Countries*. Kyoto.
- Li Tana. 1998. *Nguyen Cochinchina: Southern Vietnam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Ithaca: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 Ng Chin-keong. 1973. "Gentry-Merchants and Peasant-Peddlers: The Response of the South Fukienese to the Offshore Trading Opportunities 1522-1566." *Nanyang University Journal*, Vol. 7, 161-175.
- Phonnarat. 1971. *Phraratcha phongsawadan krung si ayutthaya chabap somdet phra phonnarat wat phra chettuphon*. Bangkok: Khlang Witthaya.
- Pires, Tomé. 1511(1944). *The Suma Oriental of Tomé Pires*. Trans. Armando Cortesão. 2 Vols. London: Hakluyt Society.
- Records. 1915-21. *Records of the Relations between Siam and Foreign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Volume I-V. Bangkok: Council of the Vajiranana National Library.
- Reid, Anthony. 1988.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 Volume One: The Lands below the Wind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Two: Expansion and Cri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Flows and Seepages in the Long-term Chinese Interaction with Southeast Asia." Anthony Reid.(ed.). Sojourners and Settlers, 15-50. St. Leonards: Allen & Unwin.
- Röhl, Wilhelm. 1955. "Japanische Siam-Kaufleute um 1600." Nachrichten der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Vol. 78, 12-17.
- Sakai, Robert K. 1964. "The Satsuma-Ryukyu Trade and the Tokugawa Seclusion Polic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3, No. 3, 391-403.
- Sakamaki, Shunzo. 1964. "Ryukyu and Southeast Asi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3, No. 3, 383-389.
- Viraphol, Sarasin. 1977. Tribute and Profit: Sino-Siamese Trade 1652-1853.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Satow, E. M. 1885. "Notes on the Intercourse between Japan and Siam in the Seventeen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13, 189-210.
- Skinner, G. William. 1957. Chinese Society in Thailand: An Analytical Histo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mith, George Vinal. 1977. The Dutch in Seventeenth-Century Thailand.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_____ 1980. "Princes, Nobles, and Traders: Ethnicity and Economic Activity in Seventeenth-Century Thailand." Constance M. Wilson, Chrystal Stillings Smith, and George Vinal Smith(eds.). Royalty and Commoners: Essays in Thai Administrativ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6-14. Leiden: E. J. Brill.
- Van Vliet, Jeremias. 1637/8(1910).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Siam." Trans. L. F. van Ravenswaay.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 7, No. 1, 5-105.
- _____ 1640(1975). The Short History of the Kings of Siam. Trans. Leonard Andaya. Bangkok: The Siam Society.
- _____ 1647(1938). "Historical Account of Siam." Trans. W. H. Mundie. Journal

- of the Siam Society, Vol. 30, No. 2, 95-154.
- Wade, Geoff. 1993. "The Ming Shi-lu as a Source for Thai History 14th to 17th Century." A paper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ai Studies, London.
- Wang Gungwu. 1981. "Southeast Asian hua-ch'iao in Chinese History-Writing."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12, No. 1, 1-14.
- _____. 1991. *China and the Chinese Overseas*.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 _____. 1992. *Community and Nation: China, Southeast Asia and Australia*. St Leonards: Allen & Unwin.
- Wolters, O. W. 1960. "Chên-Li-Fu: A State on the Gulf of Siam at the Beginning of the 13th Century." *The Journal of the Siam Society*, Volume 48, No. 2, 1-35.
- _____. 1968. "Ayudhya and the Rearward Part of the World."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3-4, 166-178.
- Wood, W. A. R. 1933. *A History of Siam*. Reprinted. Bangkok: The Siam Barnakich Press.
- Wyatt, David K. 1984. *Thailand: A Short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Yamamura, Kozo.(ed.). 1990.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ume 3: Medieval Japan*. Reprinted 19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en Ching-hwang. 1985. *Coolies and Mandarins: China's Protection of Overseas Chinese during the Late Ch'ing Period (1851-1911)*. Singapore University Press.
- 郡司喜一(군지 키이츠). 1938. 『徳川時代の日暹國交』. 東京: 東亞經濟調査局.
- 金永鍵(김영건). 1943.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 東京: 富山房.
- 金永鍵·杉本直治郎. 1942. 『印度支那に於ける邦人發展の研究 - 古地圖に印されたる日本河に就に』. 東京: 富山房.
- 森克己(모리 카츠유키). 1975. 『新訂日宋貿易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 三木榮(미키 사카에). 1934. 『日暹交通史考』. 東京: 古今書院.
- 上智大學アジア文化研究所 編. 1992. 『入門東南アジア研究』. 東京: めこん.
- 浦廉一(우라 렌이치). 1958. "唐船風說書の研究." 『華夷變態』. 上冊. 東京: 東洋文庫.
- 岩生成一(이와오 세이이치). 1933. "一六一六年暹羅國日本遣使考." 『史學雜誌』. 44

卷, 6号, 743-768.

_____ 1941. “泰人の對日國交貿易復活運動.” 『東亞論叢』, 4輯, 80-122.

_____ 1953. “近世日支貿易に關する數量的考察.” 『史學雜誌』, 62卷, 11号, 981-1020.

『華夷變態』(카이헨타이). 上·中·下. 1958. 東京: 東洋文庫.

舟越康壽(후나코시 야수히데). 1943. 『東南アジア文化圈史』. 東京: 三省堂.

『明史』. 1977. 北京: 中華書局.

『清史稿』. 1977. 北京: 中華書局.

梁嘉彬(량자빈). 1958. “論明清廣東國際貿易與近代中泰之關係.” 凌純聲 編. 『中泰文化論集』, 125-145. 臺北.

李光濤(리광따오). 1958. “明清兩代與暹羅.” 凌純聲 編. 『中泰文化論集』, 49-71. 臺北.

許雲樵(쉬운차오). 1946. “中暹通使攷.” 『南洋學報』, 第三卷 第一輯, 3-35.

陳荊和(천징허). 1958. “十七世紀之暹羅對外貿易與華僑.” 凌純聲 編. 『中泰文化論集』, 147-187. 臺北.

The Trade between Southeast Asia, China, and Japan in the 14th Century through the 17th Century Period

Hung-Guk Cho

Between the 14th and the 17th century, the seaborne trade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was more active than in any other period before. In the 14th century, Southeast Asian kingdoms such as Majapahit and Ayutthaya, China and Japan began to take an active interest in overseas trade. However, the 17th century saw a decline in the trade of China, Japan, Thailand, and Java. Thus, the period has a significant importance of its own in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The Sino-Thai-Japanese trade is often explained as a concept of triangular trade. Thus, for example, a merchant ship which sailed from Ayutthaya would often drop at Chinese ports, and then go to Nagasaki, or vice versa.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which are influenced by the same monsoon and ocean current, are not to be considered separately: the trade world of the former includes the latter and the commercial dynamism of the latter always involves that of the former. Thus, it is necessary to have a grasp of the whole structure of the trade among the major countries in the two regions, leading to understanding its character properly.

Key Words : Chinese merchant, Japanese merchant, private trade, tributary trade, South China Sea trade, triangular trade, kango trade, shuinsen (red-seal ship), Ryukyu, Ayutthaya